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1. ㉠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오늘날 인류는 생명 복제, 인공 지능 문제와 같은 새로운 윤리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이론 윤리학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론 윤리학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정립을 주된 과제로 삼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 지침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학을 연구해야 할까요?

㉠ 연구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윤리학은 인류가 직면한 문제들을 직접 다루며,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 ① 도덕적 관행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 ② 도덕성의 기원과 발달에 관해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③ 윤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④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 ⑤ 학제적 접근을 통해 도덕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2.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대중문화는 문화 산업으로 전락하였다. 문화 산업의 최대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대중은 계산의 대상일 뿐이다. 대중문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반복적인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으므로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획일화된 문화 상품은 대중을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반성적 사유를 위축시킨다.
(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요즘 예능과 드라마 시장은 정도를 넘어서 모양새다. 특정 작품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 길로 따라간다. 기존 포맷을 거의 그대로 복사해 출연자만 바꾸거나, 심지어는 출연자까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 때문이다.

- ① 문화 상품이 흥행성보다 예술성으로 평가받기
- ② 문화 산업의 성공 여부가 경제적 가치에 의해 좌우되기
- ③ 문화 산업의 산물이 탈규격화된 상품으로 대량 생산되기
- ④ 문화 산업에서 모든 창작자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장려되기
- ⑤ 문화 산업의 생산자가 대중을 능동적 사유의 주체로 만들기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감각의 상실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산 사람에게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자(賢者)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악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을: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이데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영혼과 육체가 뒤섞여 있는 한 인간은 순수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바라는 순수한 지식은 죽은 후에야 얻게 되므로 철학자는 영혼의 해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 ① 갑: 인간은 죽음을 가장 큰 악으로 여겨야 한다.
- ② 갑: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이다.
- ③ 을: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죽음 이후 모두 소멸한다.
- ④ 을: 인간은 죽음 이후에 순수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 ⑤ 갑과 을: 지혜로운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 가는 것이고, 도(道)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 가는 것이다. 없애고 또 없애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한다. 무위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을: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禮)로써 단속한다면, 도리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克己復禮]이 인(仁)이다.

- ① 갑: 무위자연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도에 따르기 위해 도덕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 ③ 을: 인을 실현하기 위해 사사로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모든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 사랑[兼愛]을 실천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학문 탐구를 통해 시비선악(是非善惡)을 분별해야 한다.

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현세대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의무가 도출된다. 그것은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 ① 현세대는 자연을 책임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 ② 현세대는 미래 세대와의 호혜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 ③ 현세대는 인류의 존속을 조건부 명령으로 수용해야 한다.
- ④ 현세대는 자신이 의도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져야 한다.
- ⑤ 현세대는 예견되는 부정적 결과로부터 새로운 의무를 도출해야 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최근 유전자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나 생식 세포 안에 정상 유전자를 넣어 유전자의 기능을 바로잡거나 이상 유전자를 바꾸는 치료법이다. 주로 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환자의 질병 치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후세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후세대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임상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자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우생학을 부추길 수 있다.

- ①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 ②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 ③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의학적으로 안전이 검증된 치료법이다.
- ④ 모든 유전자 치료는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 ⑤ 적극적 우생학을 위한 유전자 치료의 허용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예술가는 작품 속에 아름다움의 원형(原形)을 모방하여 젊은 이들의 영혼에 우아함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예술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작품 속에 추함을 표현한다면 그는 추방되어야 한다.

을: 예술가는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기 위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악덕과 미덕은 예술을 위한 재료일 뿐이다. 따라서 세상에는 도덕적인 책이나 부도덕한 책은 없다.

< 보 기 >

- ㄱ. 갑: 예술가는 도덕적 품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
- ㄴ. 갑: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원형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 ㄷ. 을: 예술가는 예술 그 자체를 예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 ㄹ. 갑과 을: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예술의 소재로 다룰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당화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을: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 ① 갑: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도출된다.
- ②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 ③ 을: 개인의 소유권은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만 생성된다.
- ④ 을: 소유물이 자유롭게 이전되었다면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⑤ 갑과 을: 분배 결과의 공정함은 분배 절차의 공정함을 통해 실현된다.

9. 갑, 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국수는 면과 국물이 주된 역할을 하고 고명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여 맛을 낸다. 이처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주류 문화는 면과 국물과 같은 역할을, 비주류 문화는 고명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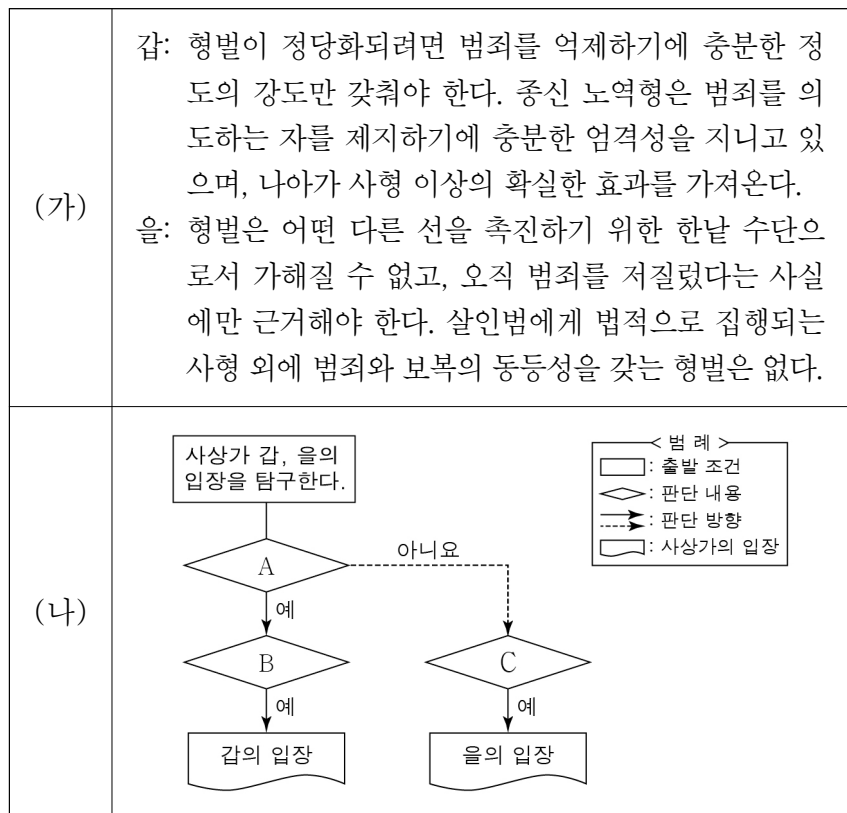
을: 샐러드는 각기 다른 채소와 과일이 본연의 향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맛을 낸다. 이처럼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가 대등하게 공존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 보 기 >

- ㄱ. 한 사회 내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도모해야 하는가?
- ㄴ.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ㄷ. 다양한 문화 간의 대등한 관계 형성을 지향해야 하는가?
- ㄹ.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켜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 ㄱ. A: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 ㄴ. A: 형벌의 목적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는 것인가?
- ㄷ. B: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형벌인가?
- ㄹ. C: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적 관계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에서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

아닙니다. 성적 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며,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관계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동의와 사랑에 바탕을 둔 성적 관계에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 ① 결혼은 정당한 성적 관계의 전제 조건인가?
- ② 성적 관계의 주된 목적은 종족 보존과 무관한가?
- ③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성적 관계는 존재하는가?
- ④ 자발적 동의에 의한 모든 성적 관계는 정당화되는가?
- ⑤ 성적 관계는 당사자 간의 사랑이 결부되어야 하는가?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삶의 양식을 구분해 놓고, 이러한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하였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이라도 신이 보기에 찬란하고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억압하고, 노동자의 인간적인 본질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는 부(富)를 생산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 ① 갑: 신의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 ② 갑: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부합할 수 있다.
- ③ 을: 노동자는 자본가와 협력하여 가난을 극복해야 한다.
- ④ 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실현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인간은 노동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음식을 바라는 것은 본성적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의 자연적 한도를 벗어나 적정량을 초과하여 먹고 마시는 폭식가는 노예나 다름없다. 인간은 이성을 발휘하여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용을 지켜야 한다.

을: 음식의 적정량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청정(淸淨)한 수행의 첫 단계이다. 인간은 음식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경계하여 중도(中道)를 지킬 수 있도록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폭식가는 이성으로 욕구를 조절하여 중용을 지킨다.
- ㄴ. 을: 음식 섭취는 청정한 마음을 위한 수양과 관련이 없다.
- ㄷ. 갑과 을: 인간은 음식 섭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공정한 재판관이 없어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일은 불안정하다. 인간은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국가에 양도한다.

을: 자연 상태는 인간을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 인간들은 자기 보존과 그에 따른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서로가 신약(信約)을 맺음으로써 단 하나의 인격에 자신들이 지닌 모든 권력과 힘을 양도한다.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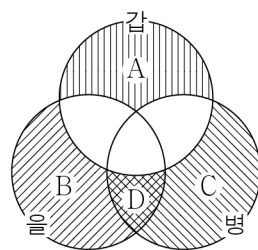
- ㄱ. 갑: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허용될 수 없다.
- ㄴ. 갑: 자연 상태의 각 개인은 자연법 위반에 대한 처벌권을 가진다.
- ㄷ. 을: 시민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주권은 분할되어야 한다.
-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각 개인은 자발적 합의로 국가를 수립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다른 존재자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 없다. 다른 존재자와 관련한 자기 의무를 이들 존재자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을: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 살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은 인간이 고유의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들 자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나)



< 범 례 >

- A: 갑만의 입장
- B: 을만의 입장
- C: 병만의 입장
-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 ㄱ. A: 인간은 동물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가질 수 없다.
- ㄴ. B: 인간은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된다.
- ㄷ. C: 의식이 없는 존재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ㄹ. D: 인간은 다른 종(種)의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올바른 소비란 상품의 가격 대비 편익을 극대화하는 소비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합리성을 상품 선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올바른 소비란 경제적 합리성보다 환경 보호, 노동자의 인권 존중 등을 중시하는 소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 가치를 상품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X: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소비를 강조하는 정도
• Y: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소비를 강조하는 정도
• Z: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소비를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 시민 불복종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리는 불의한 법에 불복종할 경우와 복종할 경우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평가해 보아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종교적 가르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갑: 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③ 을: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④ 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시킬 해악의 크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⑤ 갑과 을: 다수결에 의해 제정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그 행동이 의무에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행동은 아무런 경향성 없이 선의지 때문에 일어난 것이어야만 한다.

<문제 상황>

의사 A는 최근 말기암 판정을 받은 환자로부터 당분간 가족에게 자신의 병명을 사실대로 밝히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환자의 병명을 물어보는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의무에 맞게만 행동하세요.
② 거짓말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이익을 계산하여 판단하세요.
③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려는 의지에 따르세요.
④ 거짓말이 좋은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허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⑤ 거짓말을 부탁한 환자에게 느낀 동정심을 행위의 동기로 삼으세요.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과학 기술의 발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을 다하면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로 인해 환경 파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외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과학 기술자에 대한 외적 책임의 요구는 과학 기술자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위축시킵니다. 그 결과 과학 기술의 발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을: 맞습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지연되더라도 사회에 초래할 위험을 검토하여 과학 기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자는 내적 책임뿐 아니라 외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 ① 과학 기술자에게 외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는가?
② 과학 기술자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하는가?
③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④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가?
⑤ 과학 기술자의 연구가 위축되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지연되는가?

20.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것은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대전제</td> <td style="width: 40%;">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소전제</td> <td style="width: 10%;">㉠</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결론</td> <td colspan="3">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td> </tr> </table>	대전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					결론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																
결론		뇌사를 죽음으로 판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① 뇌사는 죽은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② 죽음의 유일한 판정 기준은 심폐 기능의 완전한 상실이다.
③ 인간의 생명권은 생명 활동의 핵심 기관인 뇌에서 비롯된다.
④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게 되면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
⑤ 신체의 모든 기능이 멈추지 않는 한 인간의 생명권은 보장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